

“올곧은 불자로 자라 나누며 살게요”

본사 제2회 나눔장학금 전달식 중·고생 42명에 총 1500만원 갑사에서 템플스테이도 체험

11월 19일 공주 갑사(주지 장곡,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인솔 교사들이 밝은 웃음을 띤 채 속속 모여든다. 이들은 본사가 주최하는 '제2회 현대불교 나눔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광주·대전 등지에서 부지런히 찾아온 손님들이다.

본사는 지난해부터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통해 성금을 모은 중립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장학금을 전달한 서울·경기지역 12개 학교를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도 지

역 14개 중립학교 학생 42명에게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

갑사에 도착한 학생들은 수련복으로 갈아입는다. 템플스테이 입제식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의 모미는 '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것이다. 단순히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불교적'인 체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1박 2일간 템플스테이 일정은 지도법사 법안 스님이 이끌어갔다. 스님은 경내를 한 바퀴 돌며 1500여년이 넘는 역사의 갑사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법안 스님이 갑사의 대표적인 성보인 동종과 월간간지주, 부도탑 등을 설명하며 진수(심인중 1)는 받아 적는다.

"선생님께서 학교 대표로 왔으니 열심히 배우라고 하셨어요."

역시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벽 예불이다. 그러나 새벽예불은 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마음 닦기'의 기본이기에 빠질 수가 없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학생들이 마음을 다 잡고 있을 무렵, 법안 스님이 학생들을 색다른 곳으로 안내한다.

"갑사에서 20분 정도만 올라가면 '문'이 없는 문(無門關)에 들어가 수행하는 스님들이 제신 대자암에 올라갈 수 있어요."

대자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곳. 계룡산의 좋은 공기와 수행자들의 열기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만하다.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소라(정광중 3)도 느끼는 것이 많다.

"우리는 하루 새벽 예불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스님들은 계속 수행을 하신다지요."



갑사 템플스테이를 겸한 '제2회 현대불교 나눔장학금 전달식'에서 갑사 주지 장곡 스님, 본사 위원장 편집국장님이 참석해 14개 중립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다.

이제 장학 증서를 받는 일만 남았다. 각 학교 대표로 참석한 학생들이기에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주지 장곡 스님은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하며 "갑사는 계룡산의 맑은 정기를 받아 이곳에 온 여러 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 깨달음이 충만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축사했다.

본사 위원장 편집국장님은 "현대불교에서 드리는 장학금은 불자들이 신문사로 보내준 성금을 모은 돈"이라며 "이번 템플스테이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축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부산 금정중학교 이석연 교감님은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웃음을 지었다. 공주/글=김강진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갑사 주지 장곡 스님

학생들 일일이 직접 챙겨

갑사 주지 장곡 스님(사진)은 템플스테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살펴가며 챙겼다.

파라미타 대전총납자부 회장이기도 한 스님은 본사에 중립학교 장학금 사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나눔성금 50만원을 쾌척했다.

이자리에서 장곡 스님은 "중립학교 학생들을 진정한 불자로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또 대원정사님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보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시요.

고침 지난해 16면 한미음선원 공주지원을 비롯한 본사 부다피야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85,430원을 1,854,300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자비의집 보덕사 보살들

봉사는 '배움'입니다

1월 22일 서울 삼양동 사거리 인근의 한 낡은 건물 앞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대신 배추가 길게 늘어선 '배추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올해도 자비의집(원장 이금현)은 배추 1600포기를 다듬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김장 김치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만도 30여명.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김장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절인 배추 씻어 건져 올리기가. 이 작업을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하루 종일 해 내는 봉사자들이었다.

자비의 집과 14년째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 신림동 보덕사(주지 승광) 봉사자들이다.

사실 김장은 1년에 딱 한 번이다. 그런데 보덕사 보살들에게는 1년에 4번도 되고, 5번도 돌아온다. 워낙 성실하다고 소문나서 그런지 김장철만 되면 여기저기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 보덕사 보살들을 찾기 바쁘다.

보덕사 보살들이 김장때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도 매달

들때 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자비의 집에 나와 급식 봉사는 물론 시설 곳곳의 물청소, 대청소까지 깨끗하게 끝낸다. 자비의 집 이금현 원장이 "시설 운영하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고맙다"고 말할 정도다.

게다가 자비의 집 봉사 외에도 봉천동 신림동 일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손수 반찬을 전달하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얼마간의 정성을 보태 반찬을 만든다. 가까운 복지관 급식 봉사 등은 이미 배추 씻어 건져 올리기가. 이 작업을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하루 종일 해 내는 봉사자들이었다.

보덕사 보살들은 "그래도 가장 오랜 시간 드나든 자비의 집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이라 말한다. 자비의 집은 이제 보덕사 보살들에게 생활 터전의 일부가 됐다. 그래서 더욱 애착이 깊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보덕사 이외의 보살(58)은 넉넉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

"편하고 즐거워요. 어려운 분들을 볼 때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겨요. 봉사는 '배움'입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항상 굶은이들을 마다 않는 급식봉사 보살들이 자비의 집에서 김장을 하고 있다.

쌀 후원자를 찾습니다

자비의 집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은 쌀이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주5일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미영(45) 보살은 "후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 무척 안타깝다"면서 "자비의 집이 아니라면 식사조차 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계속 봉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02)945-4200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소: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진)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rmsu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 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

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자들을 위한 난방기 특별보급행사

특별보급기간 2005년 11/1~12/30 특별보급대상 사찰/스님/불교단체

신일 세라믹원적외선 석유열풍히터

강약조절기능 / 쾌적난방 / 양면방사 전환기능

소비자가: ₩850,000
특별보급가: ₩690,000
SBH-011 TSI

소비자가: ₩980,000
특별보급가: ₩790,000
SBH-041 TMI

신일 전기온풍기

특별보급가: ₩188,000
SBH-3000 CTI

신일 원적외선 세라믹 히터

좌우회전기능 / 2단계 강약조절 / 상하각도조절기능 / 전도소화장치 / 과열안전장치

소비자가: ₩60,000
특별보급가: ₩48,000
SEH-961 BCT

소비자가: ₩52,500
특별보급가: ₩42,000
SEH-900 WBK

신일 원적외선 할로겐 히터

소비자가: ₩65,000
특별보급가: ₩52,000
SHE-800 HGK

Nikko 금나노 웰빙 매트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처리된 Well-being 시대의 맞춤 제품

특별보급가: ₩98,000

특별보급가: ₩115,000

WW-214S (1인용)
·사용전원: AC 220V/60Hz
·소비전력: 180W~190W
·제조국: 한국
·규격: 1,000×2,000

WW-215D (2인용)
·사용전원: AC 220V/60Hz
·소비전력: 180W~190W
·제조국: 한국
·규격: 1,000×2,000

제품특장점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멸균작용 /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개발된 조절기 사용 / 건강·웰빙시대에 적합한 제품 / 100% 완전 방수전 / 최고온도 70℃에 비해 저열한 전기세로 난방효과 최적

마하몰 고객센터 (02) 732-1520 (02) 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수익금의 일부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 분야이웃돕기 정금으로 쓰여집니다.